

2023년 하반기 경제상황 인식과 '삶의 질' 평가

■ 2023년 하반기 경제상황 인식

- _ 세계경제, 우리경제, 내 개인, 모두 여전히 '나쁘다' 생각
- _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3060세대에서 특히 높아
- _ '우리 국가경제' 부정 인식도, 자영업자 매우 높아
- _ 서울과 충청, 호남지역 특히 부정적
- _ '우리 국가경제' 부정 인식도, 고소득층과 진보층 높아

■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 미치는 영향

- _ '물가상승' 부정적 영향 가장 높아
- _ 모든 성/연령층과 직업군, '물가상승' 가장 부정적
- _ 전 지역과 모든 소득층, 이념층도 '물가상승' 가장 부정적

■ '삶의 질' 평가

- _ 자신 및 다음 세대 '삶의 질' 모두 긍정 전망 낮아
- _ 자신의 '삶의 질', 평균 또는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
- _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있다' 73%
- _ 다음 세대 삶의 질, '나보다 나빠질 것'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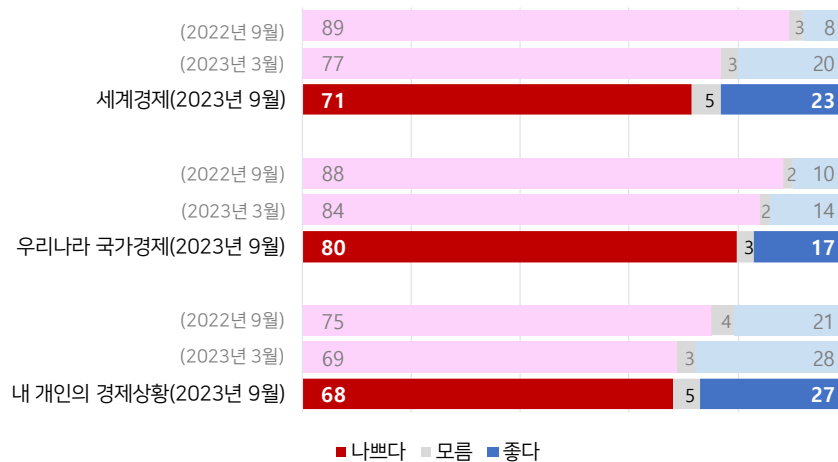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23년 하반기 경제상황 인식

□ 세계경제, 우리경제, 내 개인, 모두 여전히 '나쁘다' 생각

- 우리 국민들은 2023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세계경제'도 나쁘고(71%), '우리나라 국가경제'도 나쁘며(80%), '내 개인의 경제상황'도 나쁘다(68%)고 인식함
 - "선생님은 요즘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그리고 선생님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이전 조사(2022년 9월, 2023년 3월)와 비교하면 '나쁘다'는 인식이 개선됐으나, 절대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음
 - 6개월 전인 2023년 3월과 비교하면 '세계경제' 나쁘다는 인식은 6%p 하락했고, '우리 국가경제' 나쁘다 4%p, '내 개인 경제상황' 나쁘다 1%p 하락함

경제상황 인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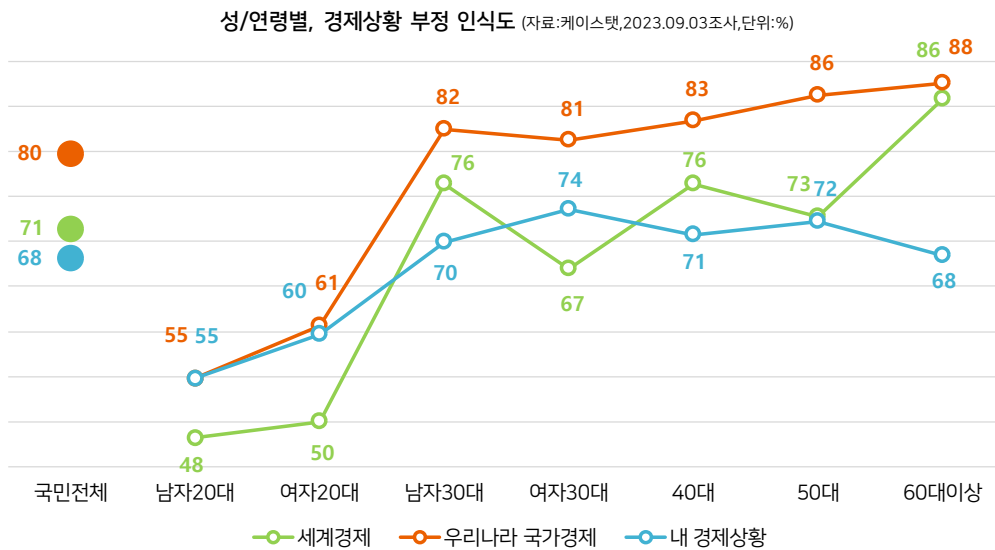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이 1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충격'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이 매우 부정적임
- ☑ 한국은행은 8월 24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발표함
 - : 경제전문가들도 경기침체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정적 경제인식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분석됨
- ☑ 한편, 지난 9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초입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수출회복과 내수진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함
 - : 그러나 경기침체 국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임해 오히려 성장률을 하락시켰다는(정부 성장기여도 1분기 -0.3%p, 2분기 -0.5%p)는 비판에서 보듯,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임

□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3060세대에서 특히 높아

- 최근 경제상황 인식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 인식도'가 특히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녀 20대의 '부정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남녀 30대부터 60대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부정 인식도'를 기록함
-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 걸쳐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이 가장 높고, '세계경제'와 '내 개인의 경제상황'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이 더 높은 성/연령층은 남자 30대, 40대, 60대이상 등임
 - 이에 비해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이 더 높은 성/연령층은 남녀 20대, 여자 30대 등임
 - 50대는 '세계경제'와 '내 개인의 경제상황' 부정 인식이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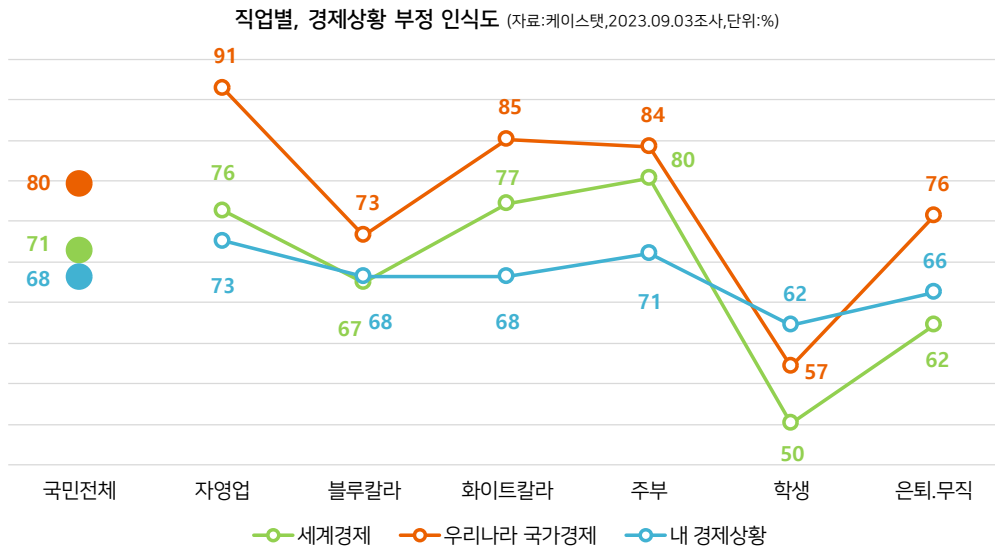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3년 하반기 경제에 대해 모든 성/연령층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녀 20대를 제외한 3060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특히 높음
 - : 남녀 20대에서도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높지만, 남녀 30대부터 부정 인식이 급격히 높아짐
- ☑ 주목되는 지점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모든 성/연령에 걸쳐 가장 높다는 점임
 - :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경기 침체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정부 입장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직시하고, 경기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임
- ☑ 또한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를 살펴보면 이 역시 모든 성/연령층에서 높은 가운데, 3060세대의 부정 인식도가 더욱 높음
 - : 국민 개개인의 경제상황이 나쁘다는 점은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에서 확인됨(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0.1%p)

□ '우리 국가경제' 부정 인식도, 자영업자 매우 높아

- 경제상황 인식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 직업군에서 부정 인식도가 높은 가운데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주부 계층의 부정 인식도가 특히 높고, 학생층이 상대적으로 낮음
-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역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세계경제', '내 개인의 경제상황' 순으로 나타남
 - 학생층만 예외적으로 '내 개인의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고, '우리나라 국가경제', '세계경제' 순임
- 또한 '내 개인의 경제상황'은 전 직업군이 비슷한 수준(62~73%)의 부정 인식도를 기록함
 - 세부적으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높고, 학생층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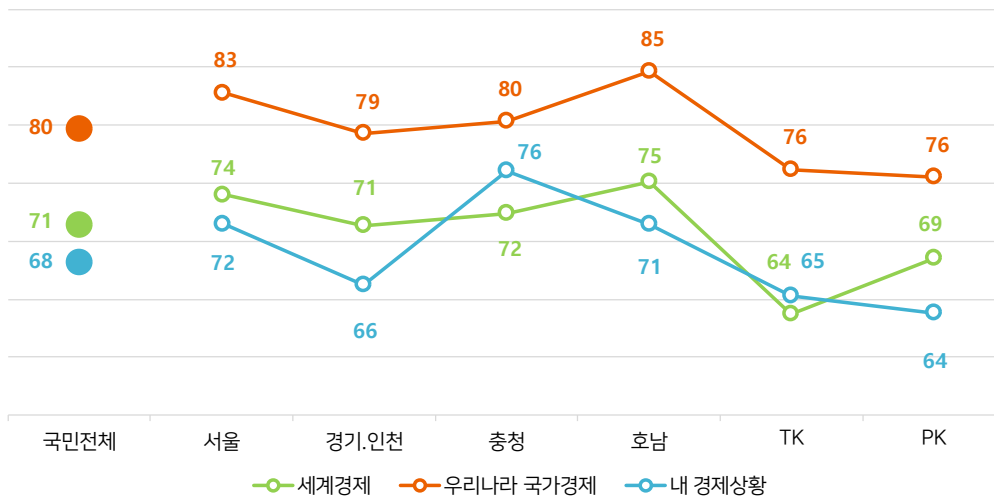
Kstat Point

- ☑ 모든 직업군이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주부 계층의 부정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 ☑ 또한 앞서 성/연령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직업군(학생층만 예외)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음
 - : 자영업자의 부정 인식도는 무려 91%로, 내수경기 침체의 고통을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고, 이를 수습하기도 전에 내수경기 침체를 맞아 고통이 더욱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는 직업을 떠나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 지금의 내수경기 침체는 모든 직업군에게 비슷한 충격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울과 충청, 호남지역 특히 부정적

- 지역별 경제상황 인식을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부정 인식도가 높은 가운데 서울, 충청, 호남지역의 부정 인식도가 특히 높음
 - 상대적으로 TK 지역의 부정 인식도가 낮음
-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세계경제', '내 개인의 경제상황' 순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이 더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호남, PK 등임
 - 이에 비해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이 더 높은 지역은 충청지역임
 - TK지역은 '세계경제'와 '내 개인의 경제상황' 부정 인식이 비슷함
- 한편, '내 개인의 경제상황'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은 충청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PK 지역임

지역별, 경제상황 부정 인식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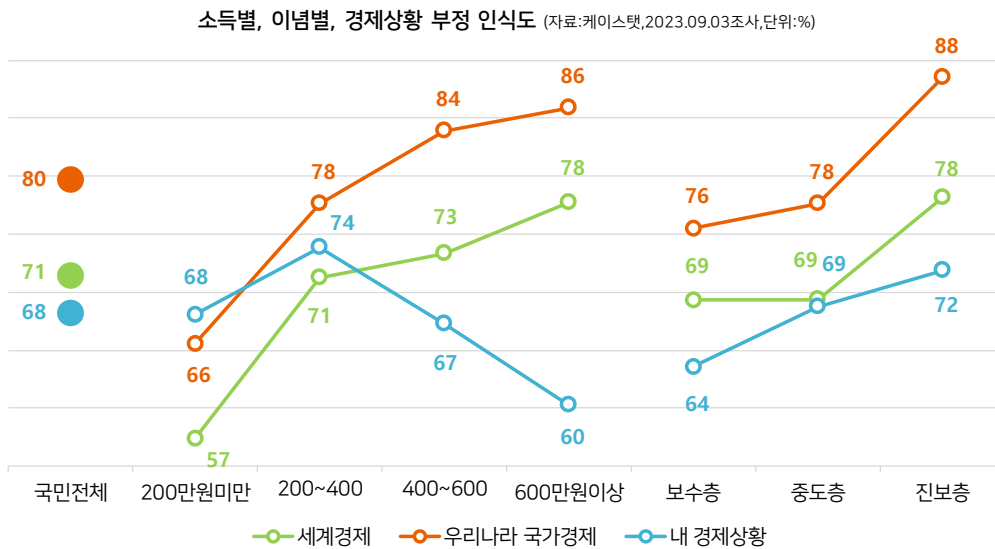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 지역에 걸쳐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높아, 현 경제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국민 모두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남
 - : 특히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이 성/연령층과 직업군에 이어 가장 높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전국적인 것으로 보임
 - : 또한 '내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 인식 역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을 기록함
- ☑ 이렇듯 경제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2022년 7월 1주에 40%대가 무너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40%대를 기록하지 못함
 - : 정부·여당 입장에서 경제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을 '긴축' 기조로 계획한 것에서 보듯, 정부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 이러한 소극적 대응 및 경기침체 상황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는 지점임

□ '우리 국가경제' 부정 인식도, 고소득층과 진보층 높아

- 경제상황 인식을 소득별로 보면, 모든 소득층에 걸쳐 부정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내 개인의 경제상황'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짐
 - '우리나라 국가경제' 부정인식도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가장 낮고,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가장 높음
 - '내 개인의 경제상황'의 경우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이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가장 낮음
- 이념별로 살펴보면, 역시 모든 이념층에 걸쳐 부정 인식도가 높음
 - 특히 진보층의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음
- 영역별로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세계경제', '내 개인의 경제 상황'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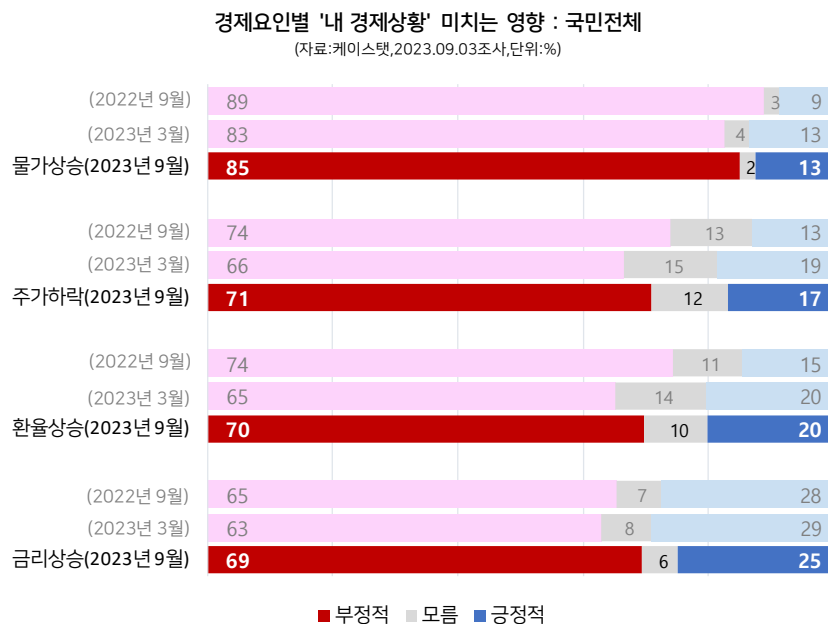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높고, 이념층에서는 진보층의 부정인식도가 특히 높음
 - : 고소득층일수록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 한편, 진보층의 높은 부정 인식도는 현 보수 정부에 대한 반발감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을 종합하면 성/연령층, 직업, 지역, 소득, 이념 등 모든 계층에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인식도가 일관되게 가장 높음
 - : 국가적으로는 수출 부진 등 무역적자가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적으로는 내수경기 침체가 문제일 것임
 - :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보다 수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이 바라는 것과 거리가 있는 모습임
- ☑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방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1차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반영되고, 내년에는 22대 총선에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 미치는 영향

□ '물가상승' 부정적 영향 가장 높아

- 경제요인들 모두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물가상승'의 부정 영향이 8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주가하락'(71%), '환율상승'(70%), '금리상승'(69%) 순으로 나타남
 - "선생님 개인의 경제 상황만 생각할 때, 다음 각각의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지난 시기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6개월 전에는 부정 영향도가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1년 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 6개월 전과 비교해 '물가상승' 부정 영향도는 2%p 상승했으며, '주가하락' 5%p, '환율상승' 5%p, '금리상승' 6%p 등으로 모두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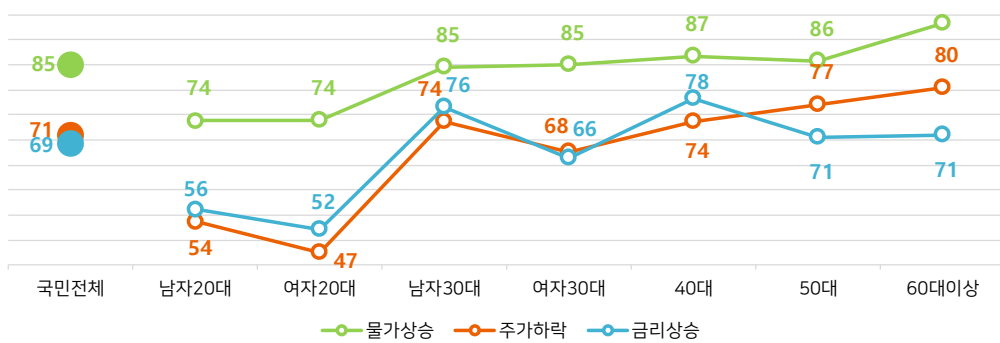
Kstat Point

- ☑ 6개월 전인 2023년 3월에는 그 이전(2022년 9월)에 비해 부정 영향력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악화됨
- ☑ 실제로 각각의 경제지표들도 개선 조짐을 보이다가 재차 악화되는 모습임
 - : 물가상승률은 2%대로 하락하다 8월에 다시 3.4%를 기록하면서 3%대에 진입함
 - : 환율은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되었다가 재차 1,300원대로 상승함
 - : 금리는 기준금리가 3.5%에 계속 동결되어 있지만,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기록 중임
 - : 주가의 경우 종합지수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변동성이 심해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 ☑ '경제는 심리'라는 말과 같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특히 우리 국가경제)이 각각의 요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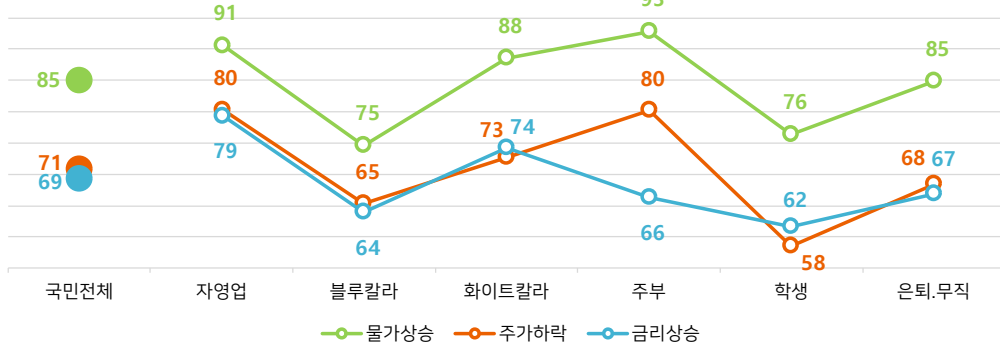
□ 모든 성/연령층과 직업군, '물가상승' 가장 부정적

- 경제요인이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영향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연령별로는 모든 요인의 부정영향도가 50%를 상회함
 - 예외적으로 여자 20대의 '주가하락'만 부정영향도가 47%를 기록함
- 또한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물가상승'으로, 모든 성/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물가상승' 부정영향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직업별로 살펴보면, 역시 모든 요인의 부정영향도가 50%를 넘음
-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은 요인 역시 '물가상승'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물가상승'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자영업자와 주부 계층임

성/연령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 부정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직업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 부정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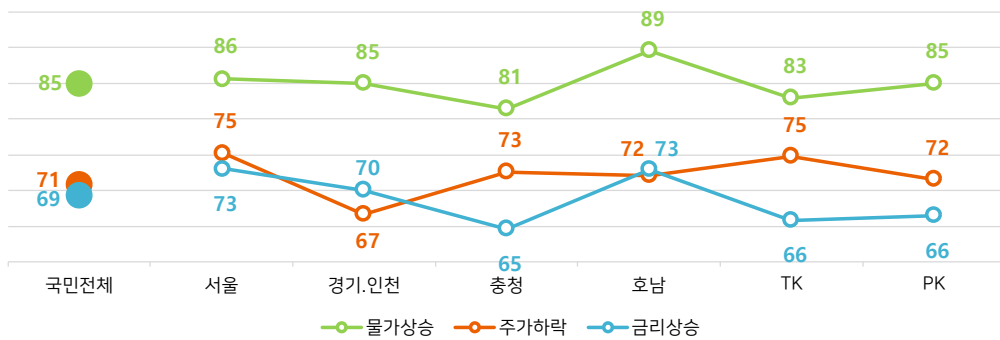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상승'은 성/연령과 직업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세부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물가상승에 예민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주부 계층의 부정영향도가 매우 높음
- ☑ '주가하락'과 '금리상승'에 대해서는 남녀 20대를 제외한 모든 성/연령층에서 부정영향도가 높게 나타남
 - : 남녀 20대의 부정영향도가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 : 이는 직업군에서 학생층의 부정영향도가 낮은 것과 맥락을 같이함
- ☑ 한편, 자영업자는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과 '금리상승' 모두에 대해 가장 부정영향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 현 경제상황을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영업자의 시각이, 개별 경제요인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토록 만든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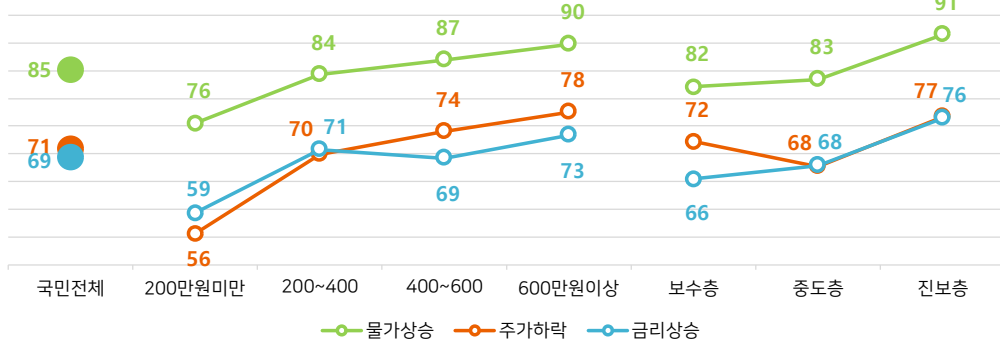
□ 전 지역과 모든 소득층, 이념층도 '물가상승' 가장 부정적

- 경제요인이 '내 경제상황'에 미치는 부정영향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요인의 부정영향도가 50%를 상회함
- 또한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물가상승'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이고, 충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소득별과 이념별로도 역시 모든 요인의 부정영향도가 50%를 넘음
-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은 요인 역시 모든 소득층과 이념층에서 '물가상승'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물가상승' 부정영향도가 높아짐
 - 이념별로는 진보층의 부정영향도가 가장 높음

지역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 부정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소득별, 이념별 경제요인별 '내 경제상황' 부정영향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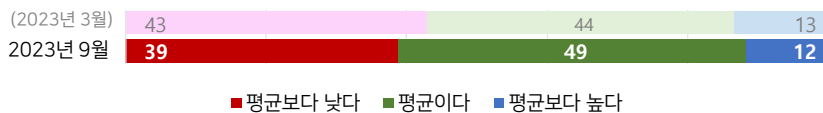
- ☑ 전 계층에 걸쳐 국민들은 물가, 환율, 주가, 금리 등 각각의 경제요인들이 '내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함
- ☑ 특히 '물가상승'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부정영향도를 기록, 개인의 경제상황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남
 - : '물가상승'은 곧바로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개인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
- ☑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악화와 가계부채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 중임
 -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함
 - : 어느 주장이 올바른지를 떠나 국민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삶의 질' 평가

□ 자신 및 다음 세대 '삶의 질' 모두 긍정 전망 낮아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은 물론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평균이다'는 응답이 49%로 높은 가운데 '평균보다 낮다'(39%)는 의견이 '평균보다 높다'(12%)보다 높음
 -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비교할 때, 스스로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 결과임
- 또한,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더 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73%로 높게 나타남
 - "선생님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일을 더 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응답 결과임
-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나와 비슷할 것'(33%), '나보다 나아질 것'(28%) 순으로 조사됨
 - "선생님보다 어린 세대가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이 선생님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응답 결과임
- 6개월 전(2023년 3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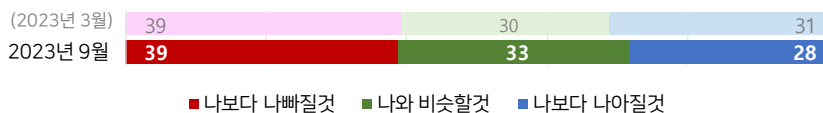
내 '삶의 질' 수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다음 세대 '삶의 질'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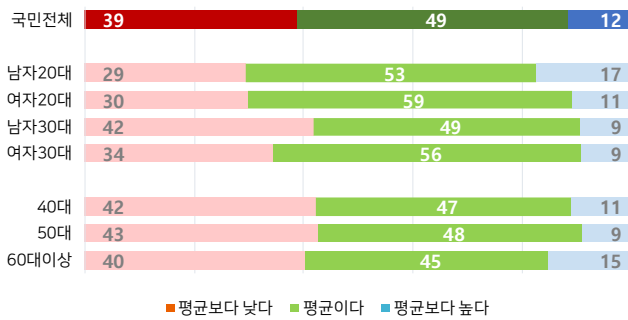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더 할 생각이 있으며, 다음 세대가 자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삶의 질'이 자신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함
 - :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요인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악화된 경제상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다음 세대 '삶의 질'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임
 - : 국민들에게 형성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되돌리지 못하면,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임

□ 자신의 '삶의 질', 평균 또는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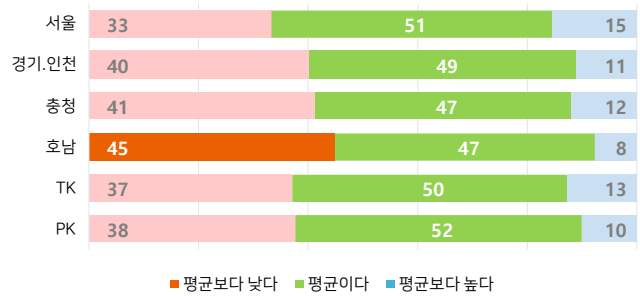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삶의 질이 대한민국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함
- '평균이다'가 49%로 높은 가운데, '평균보다 낮다'(39%)는 의견이 '평균보다 높다'(12%)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비교할 때, 스스로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평균이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전 연령층 △호남 제외 전 지역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 △400만원 이상 소득층 △전 이념층 등임
-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자영업, 주부 △4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 '평균이다'와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호남 △블루칼라 등임

내 '삶의 질' 수준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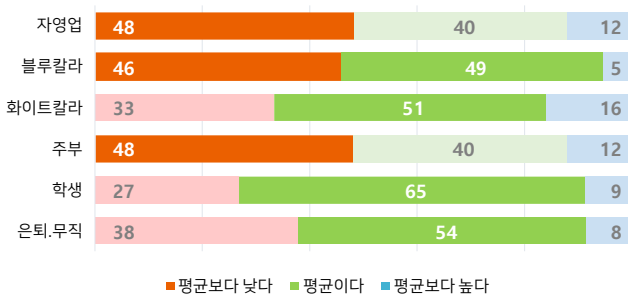
내 '삶의 질' 수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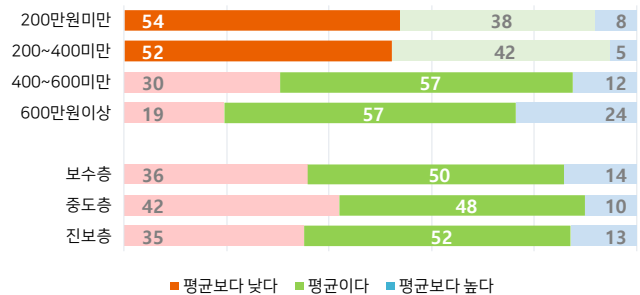
내 '삶의 질' 수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내 '삶의 질' 수준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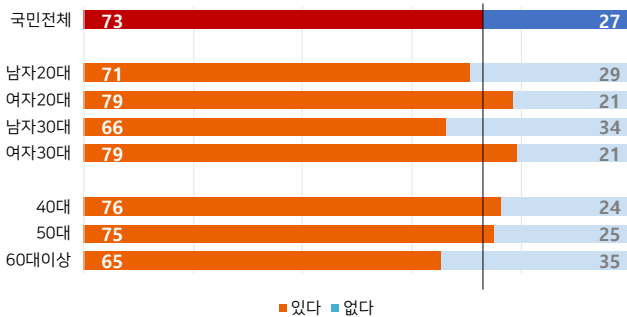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임
 - : '평균이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39%이고, '평균보다 높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함
 - : 특히 남자 30대와 4060세대는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40%를 넘을 정도로 스스로의 삶에 대해 부정적임
- ☑ 또한 소득별 응답을 보면, 400만원 미만 소득층은 '평균보다 낮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400만원 이상 소득층은 '평균이다'는 응답이 우세함
 - : 이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의미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 : 다른 계층의 응답과 종합하면, 자신의 '삶의 질'을 인식함에 있어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돈 벌기 위해 일을 더 할 생각, '있다'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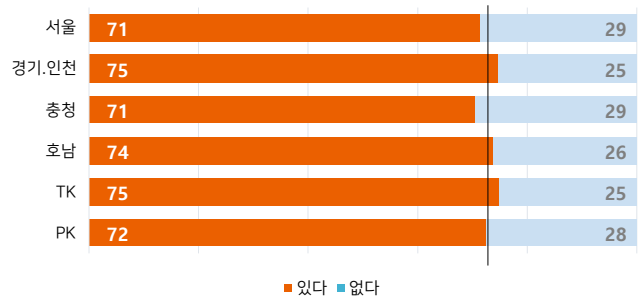
-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더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73%, '없다' 27%로 조사됨
 - "선생님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일을 더 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 TK △자영업, 학생 △진보층 등임
-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60대이상 △충청 △블루칼라, 주부 △중도층 등으로 나타남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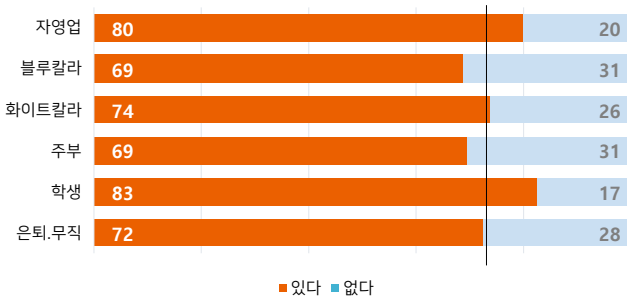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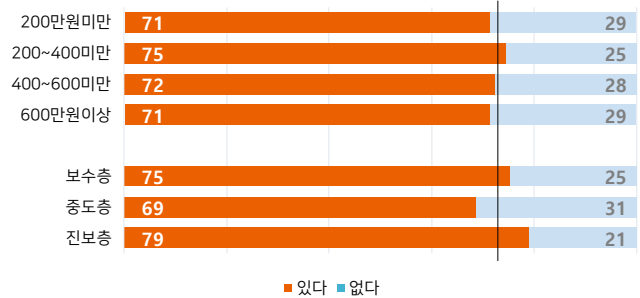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돈 벌기 위해 일 더할 생각 여부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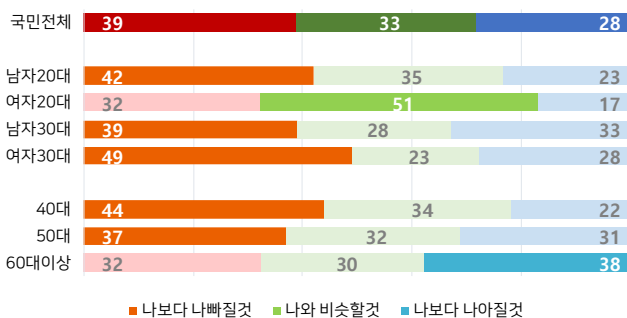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지금보다 일을 더하겠다고 생각함
 - : 이는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보임
- ☑ 이른바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임
 - : 이는 '고정적 수입 외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기존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임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69호 『국민의 경제적 삶 현황 및 분석』 참고
- ☑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경제적 기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든 것으로 보임
 - : 여자 2030세대에서 특히 일을 더 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높기 때문임

□ 다음 세대 삶의 질, '나보다 나빠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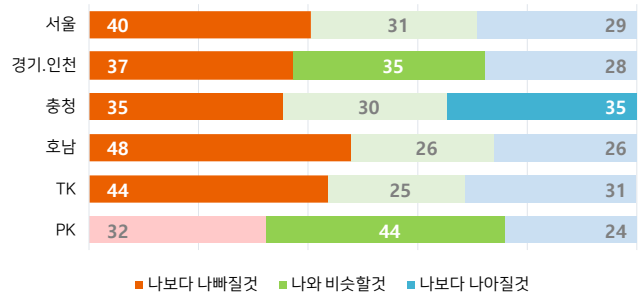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다음 세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삶의 질'이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높고, 다음은 '나와 비슷할 것'(33%), '나보다 나아질 것'(28%) 순으로 조사됨
 - "선생님보다 어린 세대가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이 선생님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응답 결과임
-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대, 남녀 30대 △4050세대 △서울, 호남, TK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은퇴.무직 △200만원 이상 소득층 △중도층, 진보층 등임
- '나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대 △PK △학생 등임
- '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60대이상 △자영업에 그침
-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난 계층은 다음과 같음
 - '나보다 나빠질 것'과 '나와 비슷할 것' : 경기.인천, 200만원 미만 소득층
 - '나보다 나빠질 것'과 '나보다 나아질 것' : 충청 / 세 의견 비슷 : 보수층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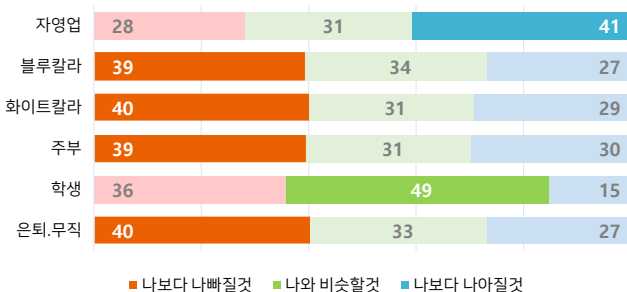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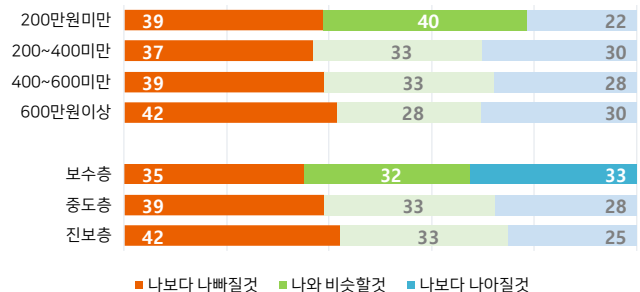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다음 세대 '삶의 질' 수준 전망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은 물론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임
 - : 성/연령별로 볼 때 여자 20대와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에서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 지역별은 물론 직업별, 소득별, 이념별로도 대체로 '나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 이는 대한민국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 때문으로 분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3호는 『이념층 '자기 인식'과 '타 이념층 인식' 비교』라는 주제로 9월 2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9월 사회지표는 9월 1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